

# “자연 누리며 안정 수입...전원생활 즐기고 있어요”



전갑석·이진숙씨 부부가 축사에서 한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 축사는 1칸(4×8m)에 2마리만 입식시키고 천장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친환경 축사로 CCTV와 컴퓨터를 연결해 집에서 24시간 축사 내부를 지켜볼 수 있다.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양지마을은 34가구가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 이름처럼 아늑한 논밭에 둘러싸여 있어 사철 따뜻한 햇볕을 받는 양지바른 곳이다. 논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서너 가구가 모여 있는 읍지마을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 마을까지 합쳐 양지마을이라고 부른다. 조그만 마을이지만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당인 셈이다.

귀농인 전갑석(59)씨의 집은 양지마을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웃 집들보다 10m 정도 높아 전지 집에서 보면 마을 주변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온다. 원래 있던 옛날 집을 허물고 집 뒤편에 있던 대나무 밭을 개간해 새로 집을 지은 탓에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명당이 됐다. 정원에 진초록의 잔디가 카펫처럼 깔려있고 사과나무를 비롯해 유실수가 손님들 반긴다. 깔끔한 1층 양육식 집은 정원과 잘 어울리고 집안은 천장까지 원목으로 시공했을 정도로 주인의 정성과 안목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전씨는 귀농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전원생활까지 즐기는 이른바 '전원형+생활형' 귀농의 성공 모델로 꼽을 만 하다. 전씨의 귀농은 6년전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진 일종의 인생 이모작 플랜이었다. 광주에서 30여년간 건축(기계설비) 일을 하면서 조그만 회사까지 운영하던 그는 2006년 건축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일을 접었다.

그는 인생 이모작의 승부를 어디에서 찾을까 고민하던 차에 귀농에서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정리하고 1년 동안 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물려준 논밭이 있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씨는 2007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광주에 살때도 주말이면 자주 들러 낚시도 즐겼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귀농인이 마을 한복판의 명당자리에 전원주택형 농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 건축업 접기 6년전부터 꼼꼼히 준비 고향에 집 짓고 오다·벼농사로 시작 경남 등 견학 농업대학서 사육법 익혀 2년뒤 역대 소득 목표 소 60두 사육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농촌출신이지만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는 탓에 열심히 귀농 교육을 받았다. 처음 시작한 것은 3300㎡의 버려진 과수원에 재래종 뽕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8400㎡의 논에는 벼를 심었다. 오디와 벼농사 모두 처음부터 저농약 친환경 재배를 시작했다. 친환경 오디는 지난해부터 수확에 들어가 전량 원예농협에 판매하고 있고 축사에서 나온 분뇨와 톱밥, 왕겨, 짚을 섞어 만든 퇴비로 재배한 친환경 벼도 전량 정미소를 통해 팔고 있다.

전씨가 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5000만원. 하지만 그의 주력 작목은 축산이다. 귀농을 선택할때부터 한우특구인 함평의 장점을 활용해 소를 키우기로 했다. 벼농사와 오디 농사를 하면서도 2010년부터는 한우 사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남 합천과 거창의 개량 한우품종을 견학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농업대학 한우반에 입학해 사육법을 직접 익혔다.

그리고 집에서 500여m 떨어진 마을 입구 습지 논을 매립해 640평의 친환경 축사를 지어 한우 29마리를 처음 입식했다. 대신 7~8개월 된 한우 암소 송아지만 입식한다는 그만의 원칙을 지켰다. 현재 사육두수는 60마리. 새끼를 계속 낳게 만들어 2014년에는 축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140마리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우 가격 폭락이 2014년에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보통 10년 단위로 오는 한우과동이 2008년 광우병 촉발시위때 왔어야 하는데 늦춰져 지금 진행중”이라며 “어차피 장기전으로 보고 지금은 투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우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혀 없다. 쌀겨가루(미강)에 사료와 발효제를 섞어 직접 만든 사료로 사료비를 30%가량 절감하고 있다. 2년뒤부터 한우를 내다 팔면 본격적인 수입이 생겨 단번에 역대 부농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사양을 예측하고 귀농을 선택한 그의 판단이 한우과동 시 이럴때도 적용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6남매의 장남인 전씨는 “귀농한 후로 여동생들이 수시로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농촌에선 가사 일도 공평하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갈등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아내 이진숙(56)씨도 “내 고향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도 친절하고 15분이면 광주에도 갈수 있어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 같다”며 귀농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 귀농인의 집 이용하세요

함평·강진·곡성 등 13개 시·군 운영

최장 6개월간 생활...귀농 정보 제공

예비 귀농인에게 주택 문제는 귀농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예비 귀농인들은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과 농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전남에는 함평·강진·곡성 등 13개 시·군에 귀농인의 집이 있다. 예비 귀농인들은 이곳에서 최장 6개월동안 전기로 등 실비만 부담하고 살면서 차분하게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다. 실제 농민들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은 입주자에게 주택이나 농지 알선 등 생활하는 귀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 들어 7월까지 도내 13곳의 귀농인을 이용한 사람은 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가주택 무상임대 서비스도 이용할 만 하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의 빈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임대는 8명이 임차는 6명이 희망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역 및 정주여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계약 실적은 없다. 하지만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비 귀농인의 보급자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복덕방인 귀농·귀촌 종합안내 홈페이지(jnfarm.jeonnam.go.kr)를 통해 주택·축사·시설하우스·종교 농가계의 매물 정보를 제공, 도시민의 귀농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복덕방을 통해 농가 주택 30건과 농지 31건의 계약이 완료됐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김향란씨(인력육성 담당)는 “예비 귀농인들은 주택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귀농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귀농인의 집 등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씨 부부가 자신의 집 정원에서 다양하게 사과나무를 손질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